

주간 묵상집

열왕기상 4:1-6 | 솔로몬 왕국의 조직이 갖는 영적인 의미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05 | 월요일 - 토요일 6일 묵상

■ 이번 주 묵상 안내

이번 주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조직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습니다. 화려한 명단과 넘치는 숫자 뒤에 감추어진 무거운 멍에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반대편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묵상 글을 천천히 읽은 뒤, 적용 질문 앞에 정직하게 머무르십시오. 마지막 기도문은 소리 내어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날 (월) | 명단의 마지막 이름

■ 왕상 4:1-6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왕상 4:6하)

솔로몬 왕국의 인사 명단은 제사장 아사리아로 시작해서 감역관 아도니람으로 끝납니다. 감역관은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한 명단이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조직도의 마지막 자리는 그 조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첫 줄이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지막 줄에 그 공동체가 진짜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조직도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 주는 첫 줄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줄이 아니라 마지막 줄을 보십니다.

적용 질문

- 남들에게 보여 주는 내 삶의 첫 줄은 무엇입니까?
-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의 마지막 줄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꾸며 놓은 앞줄이 아니라 감추어 둔 뒷줄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섭니다. 남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화) | 세금 걷기 좋게 다시 그은 경계선

■ 왕상 4:7-19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음식물을 준비하되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왕상 4:7)

솔로몬이 나눈 열두 구역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 공동체의 골격을 세금 걷기 편리한 행정 구역으로 다시 그었습니다.

효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방향을 잃습니다. 백성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이 예배의 예물이 아니라 왕실의 식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자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삶의 경계선을 다시 긋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예배의 자리, 안식의 자리, 가족의 자리가 지워집니다.

적용 질문

- 최근 효율이나 이익 때문에 내가 지워 버린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제 편의를 위해 주께서 그어 주신 선을 함부로 지우며 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 쉼의 자리, 사랑해야 할 사람의 자리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수) | 바닷가의 모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 왕상 4:20 / 창 22:17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왕상 4:20)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 22:17)

“바닷가의 모래 같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번성은 솔로몬의 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가 아니라, 수백 년을 건너 성취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실력의 결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감사하는 자만이 되고, 예배는 자기 과시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자녀, 일터, 건강, 시간, 물질. 그중에 내가 만들어 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적용 질문

- 내가 나의 업적이라고 여겨 온 것 중,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흘러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 오늘 그 은혜를 어떤 말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제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치적으로 바꾸어 자랑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목) | 숫자가 올리는 경고등

■ 왕상 4:22-28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 명이며” (왕상 4:26)

열왕기 기자는 왕실의 하루 식사량과 마구간의 수를 세밀하게 나열합니다. 이것은 자랑의 목록이 아니라 과잉을 고발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삼백 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고,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 앞에 서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힘이 사만 개의 마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의 산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건강검진표의 수치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늘어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경고등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 내 삶에서 늘어나는 것을 축복으로만 여겨 온 영역은 무엇입니까?
- 그중 하나님 앞에서 경고등으로 읽어야 할 숫자는 없습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많아지는 것을 무조건 복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 삶의 숫자들을 주의 눈으로 다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금) | 곁에 두고 읽으라 하신 그 책

■ 신 17:16-19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신 17:18-19 요약)

하나님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셋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실패는 네 번째 명령, 곧 율법서를 곁에 두고 평생 읽으라는 명령을 놓친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잠언 삼천 편을 말했고 노래 천다섯 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과 성경 앞에 서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내 지식의 창고에 쌓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의 구조를 실제로 고쳐 쓰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 최근 들은 말씀 중 내 삶을 실제로 바꾼 한 구절이 있습니까?
-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어 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아는 것은 많으나 순종은 더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제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째 날 (토) | 왕이 지신 짐

■ 마 11:28-30 / 마 20: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8-30)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솔로몬의 왕국은 왕이 백성에게 명예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백성은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고,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정반대입니다. 왕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무거운 짐을 왕이 친히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백성이 아니라 왕이 지신 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2). 그 크심은 더 많은 병거나 금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내일 주일, 이 왕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적용 질문

-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 이번 주 나는 누구의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지고 있는 짐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명예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시고, 저도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마치며

이번 주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조직도와 그리스도의 거꾸로 선 조직도를 나란히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위로 올라가며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로 내려가며 세워집니다.

한 주간의 묵상을 돌아보며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1.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2. 내 삶의 조직도에서 실제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3. 다음 한 주간 계속 붙들고 갈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암송

이번 주 암송 구절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